

# 우울한 광주·전남 기업...파산 역대 최고 우려

### 코로나·3고사태 겹치며 경영난 가중...매년 30곳 파산 올 1분기 벌써 14건 접수...전년 동기대비 75% 급증

코로나19 사태가 물고 온 경기침체 여파가 광주·전남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코로나 이후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파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올 1분기 지역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했다. 올해 지역기업들의 파산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지역 기업들의 출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2020년 37건으로 2배 상당(94.74%) 급증했다.

이어 2021년 29건에 이어 지난해 32건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이후 매년 30건 안팎의 지역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고 사태까지 겹쳐 올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1-3월) 광주지방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사건 접수 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건)에 비해 75%나 증가한 것이다.

아직 1분기임에도 전년 대비 법인 파산사건 접수 건수가 14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광주·전남에서 파산한 기업이 50

개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더 큰 불안요소는 파산 기업이 늘어났지만,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회생을 신청하기보다 아예 파산을 결정한 기업이 늘었다는 얘기로, 그만큼 지역경제가 악화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9년 광주지방법원 회생 합의 접수 건수는 36건으로 같은 기간 파산 접수 건수(19건)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회생 합의 접수 건수는 20건으로, 반해 파산 접수(37건)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에는 회생이 39건으로 파산(29건)보다 많아졌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회생이 23건으로 파산(32건)을 밀리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분기까지도 회생 합의는 11건으로, 파산(14건)보다 적어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재기를 도모하기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는 불안감이 나온다.

파산과 회생의 역전 현상은 최근 3고 현상으로 경영난이 누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5월 경기전망조사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61.2%·이하 복수응답)과 내수부진(55.5%), 원자재 가격 상승(51.7%), 업체간 과당경쟁(36.8%),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33.5%) 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3고 현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부진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지방국세청 찾아가는 소통행사

### 종교단체·교육기관 등 14곳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활발한 소통행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현상소통을 추진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7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장성군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까지 지역거점별 종교단체 6곳, 공공기관 6곳, 교육기관 2곳 등 총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단지 사업자 위주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던 기존 간담회 방식을 벗어나, 종교단체와 공공·교육기관까지 소통을 확대한 것이다.

종교단체에서는 자체 제작한 '종교단체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정보' 자료를 제공해 세부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는 공급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추진사업과 특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정보 등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한 뒤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는 게 광주국세청의 설명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역 넘어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만들겠다”

### 비즈 & 피플 <6> ‘커피북는집’ 이정민 대표

### 2006년 첫 오픈...‘로스팅 후 48시간 이내 원두’ 고수 온·오프라인 연매출 20억...지역 블렌딩 차 개발 박차



직을 세웠다"고 했다. 커피북는집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한 이유다. 이 대표는 커피북는집의 오프라인 매장 성공에

그치지 않고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문화예술복합공간인 '무등산 Coboc coffee'를 열면서 커피북는집이 생산한 원두와 드립백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민이 됐을 법한 사업확장이었지만 현재 온라인판매는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다.

“유명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매출실적이 저조했지만, 커피 맛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믿고 기다리니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역 차(茶)를 재료로 블렌딩 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커피북는집만의 로스팅 커피를 만들 때처럼 맛과 품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출시를 목표로 제품이 완성되면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정민 대표는 “어린 나이에 시작한 창업이 지금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회사 운영은 늘 위기와 기회의 연속이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커피 브랜드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처음 로스팅해 내놓은 커피에 만족해하던 고객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광주·전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커피북는집’.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멋스러운 카페로도 잘 알려진 ‘커피북는집’은 분위기 뿐만 아니라 훌륭한 커피 맛으로도 정평이 난 지역 대표 카페 브랜드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진출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넘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커피북는집’은 젊은 CEO인 이정민(43·사진) 대표가 창업한 지역 기업이다.

이 대표는 20대 중반이었던 2006년 커피북는집 첫 번째 매장의 문을 열었다. 17년이 지난 지

금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사업을 확장해 연 매출 20여억원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커피를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던 2005년 서울 한 카페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쓴 커피가 아닌 달면서도 고소한 맛의 커피를 맛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이 대표는 감칠맛 나는 커피를 선보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전국 유명 카페를 돌며 속이 쓰릴 때까지 커피를 마셨다.

이 대표는 “모든 음식이 그렇듯, 원재료가 좋아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며 “커피 맛을 결정하는 ‘로스팅’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로스팅 후 48시간 이내의 원두로만 커피를 만든다’는 원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대행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호)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대행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3차 외국인력 배정 인원은 전국 2만5000명 규모이며, 제조업은 1만800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들은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이상)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의 일수 부족시 워크넷 구인등록(7일 이상) 및 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 발표는 다음달 16일,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보해 매실, 스코틀랜드 위스키 만났다

### 국내 첫 매실 하이볼 ‘순’ 출시...GS25 단독 판매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국내 최초로 매실을 사용한 위스키 하이볼 ‘순’(純, 355ml, 6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전국 GS25 매장에서 단독 판매된다.

순은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1982년부터 41년간 매실주를 생산해온 보해양조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했다. 제품명 또한 보해양조 정통 숙성 매실주 브랜드 ‘매취순’에서 비롯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매실 하이볼 순에 사용된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좋은 볼과 질 좋은 맥아, 건조 시 피트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져 깊은 맛과 독보적인 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크칩 등으로 향만 첨가하거나 주정만을 사용해 만드는 시중의 타 캔 하이볼 제품과 달리, 진짜 위스키를 사용했다.

무엇보다 40년 이상 매실 제품을 만들며 매취순

이라는 스테디셀러 제품을 만든 보해양조의 기술력으로 만든 매실 원액이 포함돼 맛과 향도 한층 더 깊어졌다.

매실 하이볼은 국내에서는 이번 순의 출시로 처음 소개되지만, 매실주가 대중화된 일본에서는 ‘우메슈 위스키’(umeshu whisky)로 잘 알려져 있다. 위스키의 스모키함과 매실의 산뜻함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지난 1995년부터 일본에 매취순을 수출하고 있는 보해양조는 직접 수확하는 매실과 매실주 생산 기술을 통해 자신 있게 선보이는 순이 국내에서도 특별한 맛을 원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위스키, 하이볼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보해양조의 매실 기술력을 접목한 매실 하이볼 ‘순’을 출시하게 됐다”며 “산뜻한 매실 맛과 스모키한 위스키 향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국내 최초 매실 하이볼 ‘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역 대학생들 ‘한은 경제 마스터즈’ 참여 광주글로벌모터스·아문화전당 견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3일 ‘2023 한은 경제 마스터즈’ 활동 일환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견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한은 경제 마스터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생들은 이날 차체공장, 조립동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로부터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문화체험 공간과 회의시설을 둘러보고 ‘국제 MICE 도시’로의 발전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여 대학생들은 이번 방문 견학을 통해 지역 산업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진로 선택에 필요한 현장 경험을 체득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설탕값, 11년 6개월만에 최고

###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 1월 대비 27.9% 올라

세계 설탕 가격이 올해 들어 매달 상승하며 2011년 10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49.4로 지난 1월에 비해 27.9% 올랐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 1월 116.8에서 2월 125.2, 3월 127.0, 지난달 149.4로 매달 상승했다.

설탕 가격 상승은 인도, 중국 등 산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우량 증가로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

또 국제 원유가 상승,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해와화 강세 등도 설탕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수입단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탕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설탕을 원료로 쓰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가격이 따라오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밀 가격이 상승했고, 이 영향으로 라면, 과자, 빵 등 국내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6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1	16	19	21	32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670,947,250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7,470,093	88
3	5개 숫자일치					1,257,108	3,323
4	4개 숫자일치					50,000	152,826
5	3개 숫자일치					5,000	2,432,046